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25



Contents

※ 2026.04.09.(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4.02.~2026.04.08.)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산림청, 목재를 화석연료 대체 지속가능 대안으로 제시 (2026.04.06)1
- 광명시, 탄소중립 환경교육 도시 조성 위한 5개년 로드맵 수립 착수 (2026.04.08)1
- 광명시, 제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설비개선비 지원 (2026.04.08) 2
- 성주군 초전면, 백천 하천하구 환경 정화활동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6.04.08)2
- 경북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에너지 절약 실천 확대 (2026.04.07)2
- 서울시 탄소중립체험관 개관 기념 특별전 '탄소중립, 새롭게 만나다' 개최 (2026.04.06) ..3
- 광진구, 식목일 맞아 아차산에 유실수 100주 식재...탄소중립 실천 (2026.04.06)3
- 경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2차 참여자 3,041대 추가 모집 (2026.04.05)4
-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개최 (2026.04.02) 4
- 경북도, 국립기후과학원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 (2026.04.02)5

■ AI 분야 5

- 산업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제조업 AI 전환은 일자리 위한 것" (2026.04.03)5
- AIDC특별법,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 통과 불발 (2026.04.06)6
- 한-프랑스, 원전·AI·반도체·양자 등 14건 협력 문서 체결 (2026.04.03)6

- 유성구, AI와 과학 기반 '미래 선도형 과학도시' 조성 본격 추진 (2026.04.08) 6
- 안양시, 서울대와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2026.04.08) 7
- 충청도, AI 공모 대응 협의회 가동...전문가 100인 원팀 구성 (2026.04.08) 7
- 아산시, AI 기반 광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 사업 선정 (2026.04.07) 8
- 광주시, 전국 최초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구축 본격 착수 (2026.04.02) 8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9

▪ 탄소중립 분야 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 발표 (2026.04.07) 9
- 국립생태원, 수변 생태복원지에 버드나무 4,000주 식재...탄소흡수원 확충 (2026.04.05) 9
-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 서포터즈단 3기 발대식 개최 (2026.04.08) 10

▪ AI 분야 10

- 대법원, AI 가짜 판례 방지 위해 민사소송규칙 개정 추진 (2026.04.08) 10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1

▪ 탄소중립 분야 11

-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2026 춘계학술대회 개최...해양 탄소중립 해법 논의 (2026.04.08) 11

▪ AI 분야 12

- 플라리스오피스, 유비테크와 산업용 AI 로봇 솔루션 사업 공동 추진 (2026.04.08) 12
- LG, AI 인재 양성 '에이머스 해커톤' 개최...누적 참가 2만명 돌파 (2026.04.07) 12
- LS일렉트릭, 북미 AI 데이터센터에 1,066억원 규모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 (2026.04.06) 12
- 중국 민간 기업, AI로 미군 추적 정보 공개·판매...정보전 양상 확대 (2026.04.06) 13
- AI 창업 '골드러시'...미국 명문대 중퇴 창업 급증, VC 주거까지 지원 (2026.04.05) .. 1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산림청, 목재를 화석연료 대체 지속가능 대안으로 제시 (2026.04.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이 중동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화석연료 소재 공급망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목재를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번 위기를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 발표. IPCC 기준 목재 1㎥당 약 0.9톤의 이산화탄소 저장 효과가 있으며, 목재수확과 제조업 순환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확보 가능한 자원임을 강조 - 건축 부문에서는 산림청·국토교통부·LH연구원·지방정부 등이 주도하는 목조 건축 활성화 사업과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안)' 제정 추진이 진행 중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목재펠릿·목재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 및 전국 8개소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추진 - 산업 소재 측면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펄프·제지 전환과 리그닌·셀룰로오스를 활용한 나프타 등 화석연료 유래 물질 대체 연구 강화 계획.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내 10억㎥ 이상의 풍부한 목재 자원을 적극 활용해 '목재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표명
<p>지자체</p>	<p>☐ 광명시, 탄소중립 환경교육 도시 조성 위한 5개년 로드맵 수립 착수 (2026.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시가 제1회 환경교육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제2차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 논의 개시.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 환경 의식 고취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계획 - 지역 내 교육 자원을 통합하는 협력 체계 강화와 환경 교육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 방침. 모든 연령대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과정 확대를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 목표. 6월 13일 시민공론장 개최를 통해 시민 의견 직접 수렴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아 오토랜드 광명 협력 사업, 학교 연계 미래교육 지원 등 민관학 협력 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이며, 11월 제2차 환경교육 최종 계획 확정 예정. 한국환경교육연구소 등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참석
	<p>□ 광명시, 제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설비개선비 지원 (2026.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시가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설비로 교체하는 관내 제조업체에 설치비의 10%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실천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시행 발표. 에너지 비용 상승 속 중소 제조업체의 설비 개선 부담 경감과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유도가 목적 - 지원 대상은 광명시 사업자등록 제조업체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고효율 에너지 장치 구매, 석유 설비의 전기설비 전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장치 구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친환경 인증 소재·부품 활용 제품 생산 등이 주요 지원 분야 -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탄소중립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여 빠른 신청 권장
	<p>□ 성주군 초전면, 백천 하천하구 환경 정화활동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6.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백천 하천하구에서 플라스틱, 종이, 생활 폐기물 등 다양한 쓰레기 수거 활동 시행. 봄철 폭우 대비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 -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계기 마련. 면소재지 내 하천하구 생활 쓰레기 수거와 환경 정화를 목표로 추진 - 김이진 초전면장은 백천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초전면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
	<p>□ 경북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에너지 절약 실천 확대 (2026.04.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개시.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에너지와 자동차 두 분야에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분야는 경북 전역 6,840대 모집 목표이며, 1차 모집 조기 마감 시군은 2차 모집(4월 6~10일)에서 추가 신청 접수.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및 2부제 시행에 맞춰 민간 부문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 참여 유도 방침 - 에너지 분야는 연중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며, 올해 사업비는 에너지 분야 14억원, 자동차 분야 2억7,800만원 규모. 비사업용 차량만 해당되고 친환경 차량은 제외
	<p>□ 서울시 탄소중립체험관 개관 기념 특별전 '탄소중립, 새롭게 만나다' 개최 (2026.04.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탄소중립체험관 개관 기념 특별전을 4월 30일까지 1층 드림갤러리에서 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AI·AR 등 디지털 매체 기반 탄소중립·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전시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조성 - 전시는 현실인식·해결책 탐색·참여와 다짐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이 주요 내용과 흐름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 스티커 설문조사와 온라인 방문 인증 이벤트 등 시민 참여 요소도 마련 -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상암동 '평화의 공원' 내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건물로,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 중
	<p>□ 광진구, 식목일 맞아 아차산에 유실수 100주 식재...탄소중립 실천 (2026.04.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광진구가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아차산 일대에서 '탄소중립 직원 나무 심기 행사' 개최. 김경호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80여 명이 참여하여 앵두, 사과, 복숭아 등 유실수 3종 100주를 구획별로 식재 - 도심 내 탄소흡수원 확충과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아차산 일대에 유실수를 식재해 도시경관 개선과 자연 공존형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호 구청장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으로 이어진다고 하며, 지속적인 녹지 확충과 환경보전 활동 추진 의지 표명
	<p>□ 경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2차 참여자 3,041대 추가 모집 (2026.04.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2차 참여자 3,041대를 시군별 배정 대수에 따라 선착순 모집.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현금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 - 올해 경남도 총 모집 대수는 9,720대이며, 1차 모집에서 6,679대가 신청해 약 69% 참여율 기록. 도내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 대상이며 1인당 1대 신청 가능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며,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등록 완료 시 최종 승인. 법인·단체 차량, 사업용 차량, 친환경 차량은 대상 제외
	<p>□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개최 (2026.04.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열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현황 집중 점검. 2025년 4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과 부서별 달성률 분석, 제약 요인 파악 및 개선 방안 논의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2.9% 감축 목표 설정으로, 정부 목표 40%보다 높은 수준.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5개 부문에서 59개 세부 추진 사업 진행 중 - 관련 국소장과 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부문별 이행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실질적 점검 자리로 마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경북도, 국립기후과학원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 (2026.04.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가 국립기후과학원 유치 타당성 조사 및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유치에 본격 시동. 3월 12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설립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입지 선정 논의 본격화 전망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철강·에너지·첨단소재 산업 기반과 연계한 기후정책 실증과 산업 적용이 동시에 가능한 최적지라는 점 강조. 경북연구원, 경북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가 참석 -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7월까지 유치 타당성 분석, 건립·운영 구상, 실행 로드맵 등 체계적 전략 마련 예정.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설득과 전문가 자문단 협력체계 강화 방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산업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제조업 AI 전환은 일자리 위한 것" (2026.04.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제조업의 AI 전환(M.AX)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 제안. 산업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한 것은 최초임 - 김 장관은 “고용 없이는 산업 경쟁력의 의미가 없고, 산업 경쟁력 없이는 고용도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과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소통 강화 당부 - 민주노총은 산업현장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업종별 고용 유지 및 근로 여건 개선 등 관심사 전달. 산업부는 노동계와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M.AX, 지역투자 및 고용 창출 등에 대해 지속 협의 방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AIDC특별법,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 통과 불발 (2026.04.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데이터센터(AIDC)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이견으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 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가 핵심 쟁점 -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DC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비수도권 한정 LNG PPA 도입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기후부는 탄소중립 기조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 고수. 현재 국내 추진 중인 AIDC 프로젝트는 76개, 총 설비용량 10GW 이상 전망 -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조달을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AI 시대 핵심 경쟁력인 전력 조달 차질 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상실 우려 제기
	<p>□ 한-프랑스, 원전·AI·반도체·양자 등 14건 협력 문서 체결 (2026.04.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 개정 3건과 MOU·의향서 11건 등 총 14건의 협력 문서 체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지질조사 협력, 공급망 프로젝트 공동 발굴, 지속가능한 채광 협력 등 추진 - 한수원과 프랑스 오라노·프라마툼 간 핵연료 주기 관련 포괄적 협력 MOU 체결로 원자력 연료 공급망 안정화 기반 확보. 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를 통해 공동연구, 인적 교류, 산업계 협력 확대 합의 - 해상풍력 분야 협력 MOU,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향(18~35세), 산림 분야 협력 의향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 강화
지자체	<p>□ 유성구, AI와 과학 기반 '미래 선도형 과학도시' 조성 본격 추진 (2026.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유성구가 '2026년 과학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AI 기술을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과학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선도형 과학도시 조성에 착수. 청년·진잠·용산 등 3개 거점 디지털 전환(DX) 지원 센터 중심 세대별 맞춤형 교육 확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혁신 기술 보유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활성화 추진.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생애주기별 과학교육 콘텐츠 체계화와 어르신 대상 디지털 투어 운영으로 포용 도시 실현 목표 - 청년 대상 AI 실무 역량 교육, 경력단절 인력 재취업 디지털 직무 교육 등 권역별 제공 계획.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이 과학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체감형 과학도시 구현 포부
	<p>□ 안양시, 서울대와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2026.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가 서울대와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미래 혁신산업 거점 도시 도약 추진. AI 연구거점 구축 공동 추진, AI 전문 인재 양성, 산학 공동 연구, 글로벌 리더기업 유치 등이 협약 내용 - 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과 연계하여 비산동 일대를 최적 입지로 판단하고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 추진. 서부선 연장 시 신촌·여의도·서울대 등 주요 거점을 10~30분 내 연결하여 AI 클러스터의 연구·산업 경쟁력 획기적 강화 전망 - 안양시는 서부선 연장 노선을 가칭 '유테크라인(U-tech line)'으로 구상하며, 첨단 산업 구축 전략 'K37+벨트' 구성과 피지컬 AI 선도 도시 도약 목표 설정
	<p>□ 충북도, AI 공모 대응 협의회 가동...전문가 100인 원팀 구성 (2026.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도가 정부 AI 관련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하고 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100인으로 구성된 'AI 공모 대응 협의회'를 4월부터 가동.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혁신기관,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AI 전문가 참여 - 공모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엔드 투 엔드(End-to-End)'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정부 정책 부합성·사업계획 타당성·차별화 전략 등 집중 점검. 탈락 사업의 보완 재도전도 지원 계획 - 1월 '충북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시행과 2월 'AI 대도약 종합계획' 확정에 이어 정책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는 후속 조치.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 마련과 중복투자 방지도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아산시, AI 기반 광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 사업 선정 (2026.04.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아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AI 핵심기술인 광반도체 부품 제조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광반도체는 전기신호 대신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며 기존 대비 전력 효율 10배 이상 향상 가능한 차세대 핵심 솔루션 - 정부출연금 100억원 등 총 143억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AI 기술을 접목한 광반도체 설계·공정·실증 인프라 구축 추진. 중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오픈 테스트베드' 제공 계획 - 한국광기술원 주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호서대학교가 참여하며, 호서대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디스플레이·미래 모빌리티 등 기존 첨단 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제2의 실리콘밸리 조성' 정책에 탄력
	<p>□ 광주시, 전국 최초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구축 본격 착수 (2026.04.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광주 AI 실증도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도시 전역 상시 실증체계 구축 방안 논의. 단일 서비스 중심 실증을 넘어 도시 전반에서 AI 기술을 상시적으로 실증·검증·확산할 수 있는 통합 운영 모델 마련 목적 - 데이터·컴퓨팅·실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전역 상시 실증 플랫폼' 구축 방향과 AI 데이터뱅크 기반 도시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체계, 국가 AI데이터센터 및 NPU 컴퓨팅 기반시설 활용 방안 등 핵심 설계 개념 구체적 논의 - 교통안전·의료·공공행정·생활환경·문화 등 5대 생활밀착형 도시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자율주행 실증도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연계한 통합적 규제프리 모델 완성 구상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 발표 (2026.04.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I가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국제 환경 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내 해운산업의 그린 암모니아 도입 전략과 정책 과제 제시. IMO 탄소중립 달성 목표 채택과 EU 해운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편입 등으로 무탄소 연료 전환 불가피 - 주요 추진 과제로 그린 암모니아 병커링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인증제 등 법·제도 정비, 항만 인프라 구축 및 공급 안전성 확보, 선사-연료 업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 실증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제시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암모니아 선박 연료 공급선의 법적 근거 마련과 누출 사고 대비 안전 지침 및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 이러한 기반 마련 시 국내 해운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 전망
	<p>☐ 국립생태원, 수변 생태복원지에 버드나무 4,000주 식재...탄소흡수원 확충 (2026.04.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생태원이 용화실못과 금구리못 일원에서 버드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적용. 임직원과 코리아에코클럽 회원, 서천군 관계자 등 약 150명 참여 - 약 1만㎡ 수변구역에 왕버들·선버들·키버들 등 자생 버드나무류 묘목 4,000주 식재. 버드나무는 빠른 성장과 높은 탄소 흡수 능력으로 기후위기 대응 수종으로 주목받으며, 토양 유실 방지와 비점오염 저감, 야생생물 서식처 제공 등 복합적 효과 - 용화실못과 금구리못은 과거 오염 농업용 저수지를 복원한 국내 대표 수변 생태복원 사례로, 현재 식물 다양성이 자연 호수 수준까지 회복. 이창석 원장은 버드나무 묘목 분양과 공동 식재 확대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지속 추진 방침 표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 서포터즈단 3기 발대식 개최 (2026.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지대 위탁운영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14일 오후 2시 상지대 본관에서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단 3기 발대식' 개최 예정. 대학생과 청년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확산이 목적 - 3월 약 2주간 서포터즈 모집 결과, 당초 30명 모집 인원 대비 48명이 지원하여 전원 선발. 선발된 서포터즈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운영과 탄소중립 아카데미 교육 지원 등 활동을 통해 실천 확산과 인식 제고에 나설 예정 - 발대식은 서포터즈단 활동 소개,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재난연구실장의 탄소중립 실천 강의, 임명장 수여, 팀 구성 및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 참여자 간 소속감 형성과 탄소중립 실천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 강화 목표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대법원, AI 가짜 판례 방지 위해 민사소송규칙 개정 추진 (2026.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허위 법령·판례가 재판 서면에 인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사법 신뢰 우려 발생.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 기재, 기존 판례를 조합한 '가짜 판례' 포함 등으로 재판 지연과 행정 낭비 초래 - 서울북부지법 민사 사건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드러나 원고 패소 판결 사례 발생.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2023년 AI 허위 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한 변호사에게 5만5,000달러 제재금 부과 선례 -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소송서류에 AI 사용 고지와 내용 정확도 검증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며, 허위 인용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도 검토 중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p>☐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 2026 춘계학술대회 개최...해양 탄소중립 해법 논의 (2026.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퇴적환경준설학회가 제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퇴적물 관리와 탄소포집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2026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 개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한 준설 산업의 정책 방향과 기술적 대안 논의 - 최재영 학회장은 해양 퇴적물이 탄소 저장과 생태계 유지의 핵심 자원으로 재조명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준설토를 활용한 블루카본(Blue Carbon) 확충 등 혁신적 연구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방침 표명 - 탄소포집 및 저장(CCS) 연계 기술, 미세플라스틱 거동 분석, 철 산화물 기반 카드뮴 독성 예측, 왕겨 기반 중금속 흡착 기술 등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 다수 소개. 기후 적응적 안정화 공법과 폐기물 기반 지오폴리머 재활용 등 다학제적 논의 진행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폴라리스오피스, 유비테크와 산업용 AI 로봇 솔루션 사업 공동 추진 (2026.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라리스그룹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비테크 로보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산업 현장 특화 AI 로봇 솔루션 사업 공동 추진. 폴라리스오피스가 로봇의 소프트웨어 영역을 담당하여 데이터 분석·상황 판단·작업 지시 AI 시스템 전반 관할 - 그룹 내 자동차 부품·합성사·원료의약품 등 제조 계열사에서 직접 학습시킨 맞춤형 AI 모델을 활용하며, 인터넷 연결 없이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On-Device) AI 기술 고도화로 보안성과 현장 대응 속도 동시 확보 목표 - 그룹 내 자체 테스트베드를 보유하여 자사 공장에서 AI와 로봇을 실험·개선 후 외부 시장 공략에 활용하는 전략.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하드웨어 통합 플랫폼 제공으로 구독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장 기대
민간기업	<p>☐ LG, AI 인재 양성 '에이머스 해커톤' 개최...누적 참가 2만명 돌파 (2026.04.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가 경기 이천 LG인화원에서 이틀간 'LG 에이머스 해커톤' 개최. 2022년 시작된 LG 에이머스는 AI 기술로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누적 참가자 2만명 이상 -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산업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청년 AI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LG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 이번 해커톤에는 다수의 청년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AI 기반 산업 난제 해결 역량 경쟁 진행
	<p>☐ LS일렉트릭, 북미 AI 데이터센터에 1,066억원 규모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 (2026.04.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일렉트릭의 자회사 LS파워솔루션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약 7,026만달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약 1,066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 미국 중부 지역 빅테크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용 마이크로그리드에 345kV급 초고압 변압기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기간은 내년 4분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이며, 계약 소식에 LS일렉트릭 주가 6.76% 상승 -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의 수혜 사례로 주목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국 민간 기업, AI로 미군 추적 정보 공개·판매...정보전 양상 확대 (2026. 0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국 항저우 기반 기업 미자비전 등이 AI와 공개 위성·오픈소스 데이터를 결합하여 미군 항모전단 이동 경로, 기지 내 장비 배치, 공군 작전 편대 등을 상세 분석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대량 유포 - 미자비전은 USS 포트·링컨 항모전단 이동, 이스라엘 오브다 공군기지 F-22 배치, 패트리엇·THAAD 미사일 방어 체계 위치 등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분석. 정안 테크놀로지는 AI 기반 전쟁 감시 플랫폼 '징치'를 통해 미군 B-2A 스텔스 폭격기 음성 통신 가로채기 주장 - 중국 정부는 민간 사업으로 규정하나 민군융합 전략 연계 가능성 제기.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 AI를 전 산업·군사 영역에 확대하는 'AI+' 이니셔티브와 지능화 전쟁 강화를 핵심으로 제시 <input type="checkbox"/> AI 창업 '골드러시'...미국 명문대 중퇴 창업 급증, VC 주거까지 지원 (2026. 0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하버드대·스탠퍼드대·MIT 등 명문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AI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급증. 벤처캐피털(VC)들은 투자뿐 아니라 아파트·가구·생활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창업 환경 자체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변화 - AI 유니콘 기업 창업자의 평균 연령이 2020년 40세에서 2024년 29세로 급락. 코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작성·디버깅 자동화 AI 소프트웨어 등장으로 소수 인력만으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며 창업 진입 장벽 하락. 글로벌 VC 투자 올해 1분기 사상 최고치 기록</p> <p>- 링크벤처스 창업자는 약 540만달러를 들여 MIT 인근 아파트를 매입해 창업자 숙소로 제공. 미국 컴퓨터공학 전공자 실업률 7% 상승 등 고용 시장 변화도 창업 대안화에 영향</p>
기타	<p>- 해당 없음</p>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